| 현불 논단 |

인생은 사라지는 연기야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타계한 배우 신성일 입관 후
엄앵란 "인생은 연기" 한마디
'演技 · 煙氣 · 緣起' 의미 떠올라

명연기 위해서는 아상 버리고
無我 경지서 세상과 소통해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
인생은 사라지는 연기와 같아
모두 붓다의 연기론과 맞닿아

가을이 떠나가고 있다. 길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있다. 낙엽을 보고 멋을 느끼기보다 청소부의 고달픔을 먼저 생각하니 늙긴 늙은 모양이다.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인 신성일 씨가 지구별을 떠났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종로 극장가를 배회한 허리우드 키드였던 나에게 그의 떠남은 어떤 한 시대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찌들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는 한 시대의 별과 같은 로망이었다.

"인생은 연기야!" 이 말은 엄앵란 씨가 남편 신성일 씨의 시신을 입관한 후 한 말이다. 언론은 이 말을 표제로 뽑아 그녀의 애달픔을 전하고 있다. 남편을 '안의 남자'가 아닌 '밖의 남자'로 표현한 엄앵란 씨의 속앓이가 그동안 얼마나 심했을까. '인생은 연기야'라는 표현을 보자 언뜻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첫째로는 배우가 무대에서 펼치는 연기(演技)를 생각했다. 인간의 삶을 연극과 배우로 비유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해 엄청 많다. 명배우 최불암 씨는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배우라는 오래된 대사에 관하여〉라는 긴 제목의 책을 펴내 배우로서의 인생살이를 회고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불을 만들면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연기(煙氣)를 생각했다. 언뜻 매우 허무한 표현으로 들린다. '인생은 헛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인생을 연기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세 번째로 붓다의 연기(緣起)론이 연상된다. 연기론은 불교 사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연기법에서 무아와 공의 사상이 나오고 자비 사상이 발현된다. 붓다가 밝혀낸 연기법은 경이롭고 위대한 사상이다.

지금도 연기적 인과론을 공부하고 생각할수록 그 심심미묘함에 현기증을 느낀다. 이 글을 쓰면서 당시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엄앵란 씨가 말한 연기는 바로 붓다의 연기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본 것이리라. 엄앵란 씨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다스린 분으로 알려져 있다. 남편 신성일 씨를 보내면서 붓다의 연기를 생각했다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연기라는 단어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이곳에 붓다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명배우가 되고 명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상(我想)을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틀을 벗어나 타자가 되고 세상과 공감할 때 비로소 명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무아의 경지다.

또 인생을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에 비유한다면 〈금강경〉의 사구게(四句偈) 중 제1구게를 연상시킨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이 제1구게는 허무의 내용이 아니라 실존으로 가는 출발점일 것이다. 아마도 허무는 실존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붓다의 사성제 중 고성제가 으뜸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두가 붓다의 연기법과 함께하고 있다.

엄앵란 씨가 남편을 보내면서 참으로 명연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 걱정은 욕심이다. 다들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산다.", "여기서 인연을 맺었기에 내 식구 내 새끼라며 애지중지하지만 결국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 그리고 마초 같은 남편에게 내생에는 순두부 같은 여자를 만나기를 기원해주니.

이러한 엄앵란 씨의 모습이 아름답다. 팔순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맨발의 청춘'에 나온 그 모습처럼 아름답다. 건강하길 기원한다.

社 說

소통과 화합의 조계종 거듭나길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식 취임하면서 최근 진용을 갖춘 36대 집행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종도들의 관심은 원행 스님의 공약 실천에 쏠릴 것이 분명하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기간부터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중공의 실현을 강조해왔다. 총무원장 당선 직후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겠다"는 각오와 함께 안정과 화합,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 것을 천명했다. 종단 안팎에서 다양한 소임을 두루 경험하고, 이를 조율하는 위치에 있던 원행 스님이 자신 있게 내세운 기조다.

이 같은 원행 스님의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 스님들까지 높이 평가하며, 사회의 모범이 되는 조계종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원행 스님 취임법회 축하 메시지에서 "원행 스님은 늘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교육, 환경, 복지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오셨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으로 조계종과 한국불교에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원행 스님 역시 이 같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부대중 모두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함께 탁마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수개월간 조계종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세력으로 나뉘어 파화합을 연출했다. 이제는 불교도가 지혜를 모아 화합하며 사회 모범으로 거듭날 때다.

'신행앱' 이젠 활용이 중요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2012년 야심차게 추진한 연령별 마음거울 108앱 사업이 11월 14일 청년 마음거울 108앱 출시와 함께 완성됐다. 이번 108앱 출시로 어린이, 청소년, 중년, 어르신에 이어 2030연령에 맞는 수행 애플리케이션 라인업이 구성됐다.

마음거울 108앱은 청소년 교화를 위한 사회의 요청에 의해 개발이 진행됐다. 2012년 먼저 개발된 어린이 청소년 앱은 청소년법회 현장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관건은 이후 개발된 중년, 어르신, 청년 마음거울의 활용도다. 많은 이들이 개별 수행에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용법과 활용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마음거울 108앱은 6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 친절한 문구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일러스트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거울앱은 절하는 속도와 횟수, 다양한 배경음악과 음향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갖춰 템플스테이나 법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 중 으뜸으로 치는 금강석은 다른 암석에 비해 단단하고 변질이 되지 않기에 가치가 높다. 그 자체의 가치보다, 금강석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의 가치가 더해진 것이다. 원석인 상태보다 세공된 금강석이, 그리고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금강석이 가치가 월등히 높다.

마음거울앱도 금강석과 같다. 잘 만든 앱일수록, 적절한 곳에서 잘 활용되어야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젠 포교원과 불교문화사업단, 그리고 제방 사찰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한 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이 남긴 것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진행했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이 올해 제15회 공모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지원사업 수상자로는 방정란 박사(독일 함부르크대)가 번역부문에서 이름을 올렸다. 박사논문 지원은 해당자가 없어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2023년까지 미출간된 박사논문 · 번역물들에 대한 출간 작업이 끝나면 지원사업은 최종 완료된다.

2004년부터 시작된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박사학위논문 지원과 번역 부분으로 나눠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박사학위논문 19명, 번역 19명 총 38명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지원금과 더불어 논문 및 번역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판한다는 것이었다. 박사학위논문은 2008년부터 출판지원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9명이 자신의 학위 논문이 단행본으로 묶어 나오는 수혜를 입었다.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불교연구총서'라는 시리즈로 발간된 총서는 현재까지 15권이다. 앞으로도 12권의 논문과 번역서가 더 발간돼야 한다.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4억 7천여 만원이 투입된 인재불사다. 향후 5년동안 이뤄지는 출판작업 소요 예상비용 8천만원을 포함하면 약 5억 5천만 원이 약 20년 동안 소장학자들에게 지원된 것이다.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학자의 논문과 번역이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것은 자신의 학술활동에 많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지원 사업을 거쳐 간 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불교학계 전반에서 이제는 중진학자로서 이름을 떨치는 인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김성철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은 〈섭대승론 증상혜학분 세친석과 무성석 역주〉로 제1회 지원사업 번역 부문을 수상했다.

계율 전문 연구자로 최근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열반경 연구〉로 제7회 번역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명법 스님(구미 화엄탑사 주지)과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 전공 교수,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는 제4회 박사학위 부문 수상자다. 본지 필진인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도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로 제3회 지원사업 박사학위 논문 부문을 수상했다.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회 회장인 법상 스님, 성열스님(강남포교원) 등 10여 명의 스님이 마음을 내고 50여 명의 신도가 지원해 시작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들이 줄고, 재정적 어려움이 이어졌다고 한다. 사업을 이어받은 후학들은 흐지부지하게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시한과 계획을 정해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업회 관계자는 "의미있는 곳에서 소장학자 지원사업을 이어갔으면 한다. 사업회 측에서 그간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다"고 했다.

소장학자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젊은 학자들의 활동 영역 하나가 줄었고, 〈열반경 연구〉 · 〈불교의 중국정복〉 등과 같은 중요한 번역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지원사업의 마지막이 아쉽고 아쉽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